

## 국무회의

###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

앞으로 큰 틀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것이 국정 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 속에서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과 관행이 혼재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과 내각이 일체화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적 바람을 종합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일상적 국정운

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일상적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총괄**

대통령이 일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위상이 달라지고,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모두 대통령이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독총리, 얼굴총리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제는 일상적 국정 사안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부처는 이러한 방향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관심 사항,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시켜 주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에 오는 보고서는 앞으로 총리실에도 같이 보내세요. 일상적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국무회의는 총리 중심으로 해 나가되,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